

GARDEN MAP

HOTEL CHINZANSO TOKYO



- 출입구 안내
出入口ご案内
- 사적·경승
史蹟・景勝
- 칠복신
七福神



호텔 친잔소 도쿄 정원

역사와 7계절, 기적의 절경을 둘러보다

난보쿠초 시대에는 동백나무가 자생하는 명승지로 알려져 '츠바키야마'라고 불렸습니다. 메이지 시대의 원훈(元勳)인 야마가타 아리토모 공작이 1878년 사재를 털어서 이 땅을 구입했습니다. 정원과 저택을 짓고 '츠바키야마'의 이름을 따서 '친잔소'라고 명명하여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현존하는 야마가타 공의 정원은 '야마가타 3대 명원'이라 불리며, 약 40년간 본택으로 삼았던 메지로의 진잔소, 별장인 교토의 무린안(無鄰菴), 말년을 보낸 오다와라의 고키안(古稀庵)에서는 지금도 그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명원에서 야마가타 공의 "수경(水景)"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느낄 수 있으며, 고향인 야마구치현 하기시를 연상시키는 물줄기와 연못, 폭포 등이 원내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1918년 간사이 지역 재계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후지타 헤이타로 남작(후지타구미 2대 당주)이 야마가타 공으로부터 이 정원을 물려받았습니다. 후지타 남작은 삼중탑을 비롯해 역사를 회상하게 하는 문화재들을 곳곳에 놓아두었습니다. 자연을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산수를 진심으로 즐겼던 야마가타 공, 그 뜻을 이어받아 정원의 정취를 고조시킨 후지타 남작, 그리고 현재는 후지타 관광으로 본 정원이 계승되고 있습니다.

봄에는 벚꽃, 신록, 초여름의 반딧불이, 시원한 여름의 녹음, 가을의 단풍, 겨울의 설경, 초봄의 동백나무. 사계절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칠계(七季)'를 자랑하는 호텔 친잔소 도쿄의 정원에서는 자연과 현대 기술을 접목한 국내 최대 규모의 안개 정원 연출 '도쿄 운해'와 함께 7계절 내내 기적의 절경을 선사합니다.

개업 70주년을 계기로 선정한 '레이와 12경'을 야마가타 공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원의 각 지점(조망을 즐길 수 있는 장소)에서 보시면서 시대를 거쳐 이어져 내려오는 자연과 압도적인 힐링의 시간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Voice Guide



레이와 12경

1.삼중탑 '엔쓰카쿠'

히로시마현 가모군 다카무라야마산 지쿠린지 절(篁山竹林寺)에 창건된 삼중탑.

1925년에 옮겨 왔습니다. 건축 공법이나 세부적인 양식으로 보아 무로마치 시대 전기의 작품으로 추정되지만 그 이전(헤이안 시대 말기)에 다이랴노 기요모리(平清盛)가 1차 복원을 했다는 설도 있어, 창건의 비밀은 아직 밝혀지지않았습니다. 2010년에는 이전 후 처음으로 '헤이세이 대수선'을 실시하여 본존으로 성관세음보살(聖觀世音菩薩)을 봉안했습니다.

임제종 쇼코쿠지파 아리마 라이테이 예하(有馬賴底猊下)의 낙경 및 입불 개안공양을 거행하여 '엔쓰카쿠(圓通閣)'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2.유스이치 연못

야마가타 공이 조성할 당시부터 존재했던 연못으로 표주박 모양이 특징입니다. 한때 야마가타 공이 직접 선정한 '친잔소 10승지'에도 포함돼 오늘날에도 옛 정취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연못 주변을 중심으로 안개 정원 연출 '도쿄 운해'가 등장합니다. 시대를 초월한 유스이치 연못과 사계절마다 다양한 표정을 보여주는 운해의 콜라보레이션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3.조슈바쿠 폭포 (聽秋瀑)

유스이치 연못에서 흘러나온 물이 바위틈으로 쏟아져 생긴 작은 폭포. 가을秋(단풍)을 들을聽(사랑할) 폭瀨(폭포)이라는 운치 있는 이름에서도 야마가타 공의 수경(水景)에 대한 애착을 엿볼 수 있습니다.

4.고코세이 우물

지치부 산맥에서 이어진 지하수가 솟아나오는 우물입니다. 후지타 헤이타로 남작의 아내 도미코는 고코세이 우물 주변을 특히 좋아해 마음을 치유했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또한 1923년 도쿄 대지진 당시에는 물을 찾는 이재민들에게 개방하여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5.운킨치 연못

운킨(雲錦)이란 봄의 벚꽃과 가을의 단풍이 그려진 색동무늬를 뜻합니다. 건너편 강가에 벚꽃, 단풍나무가 많아 봄과 가을에 수면을 물들일 만큼 아름답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이 연못도 정원 조성 초기부터 있는 수경입니다.



6.호타루사와

본래 '지쿠리케이(竹裏溪)' 계곡이라 불리며 야마가타 공이 선정한 '친잔소 10승지'의 흐름이 있었던 곳으로 현대도 시냇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벤케이바시 다리에서는 초여름의 풍물시인 반딧불이의 환상적인 빛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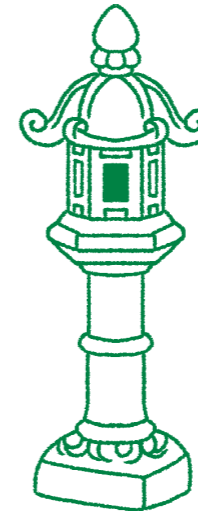
7.신목

수령 약 500년. 호텔 친잔소 도쿄에서 가장 오래된 모밀잣밤나무로서 다양한 역사를 지켜봐 왔습니다. 2004~2006년 '친잔소 신 10승지' 선정 시 정승지로 선정되었습니다.



8.한나지식 석등롱

가마쿠라 시대 후기의 일품. 에도 시대의 다도인과 조경가들 사이에서 '명물 등롱' 중 하나로 인기를 얻었던 '한나지(般若寺)식'의 석등롱. 그 명성 때문에 많은 모작이 만들어졌지만, 1978년 석조미술 연구의 권위자 가와카쓰 마사타로(川勝政太郎) 박사에 의해 친잔소 정원의 등롱이 가마쿠라 시대에 만들어진 원작이고, 나라현 한나지 절에 현존하는 것은 이것의 사본일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쓰러졌을 때 복구한 흔적이 있습니다. 형태가 있는 것, 역사를 새기면서 지켜나가겠습니다.



9.츠바키야마·쓰바키코지

예로부터 동백나무가 자생하였고 에도 시대에는 유수의 행락지였던 옛 시절을 기리기 위해 친잔소의 유래가 된 '츠바키야마'의 지명을 따서 건물 정면의 언덕을 '츠바키야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삼중탑 뒤편에는 야마가타 공의 고향인 야마구치현 하기시의 가사야마산 동백나무 군생림을 모방한 이끼 정원과 야생동백나무 길도 펼쳐집니다.

10.고조타키 폭포

1965년에 준공. 물의 움직임이 다이내믹하게 연출하고 있는 폭포 돌조각과 정원에다 역동감을 주는 물소리, 폭포에 드리워진 아름다운 단풍 등, 야마가타 공 시대부터 시작된 수경의 아름다움을 역사를 이어온 선조들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폭포 뒤편에서도 정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11.간가 정원

1987년에 지어진 스키야 구조(다실풍 양식)의 고급 요릿집 '긴스이(錦水)'. 친잔소 개업 70주년(2023년)을 기념하여 긴스이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안뜰이 '간가(閑雅)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레이와 12경'에 선정되었습니다.

간가 정원에서는 맑은 물이 유유히 흐르는 모습과 웅장한 폭포, 그리고 건물과 인접한 운킨치(雲錦池) 연못 등 다양한 수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메이지, 다이쇼, 쇼와 시대의 기록(『일본의 명승』 등)에서 친잔소가 종종 '한아하다'라는 평을 받았던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2.보코바시 다리에서 본 수경

야마가타 공의 정원을 상징하는 요소로 물줄기가 교차하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교토의 무린안(無鄰菴), 오다와라의 고키안(古稀庵)에서도 공통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원관은 야마가타 공의 고향인 하기(萩)의 경치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3년 야마가타 공이 애착을 가졌던 이 수경을 '레이와 12경'으로 선정하고, 멀리 떨어진 고향을 떠올리는 전망대라는 의미를 담아 발밑에 있는 나무 다리에 새롭게 '보코바시(望郷橋)'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라칸세키 석상

에도 시대 중기의 화가 이토 자쿠추(伊藤若冲)의 밑그림으로 그려진 오백나한 중 약 20여 점으로, 교토 후시미에 있는 세키호지 절(石峰寺)에 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잔계쓰

하코네 고와쿠다니에 있는 후지타 남작의 별장에 남작이 오모테센케(表千家, 일본 다도 3대 유파 중 하나)의 다실 '잔계쓰테이(殘月亭)'를 모방해 건축(1918년 완공)한 것을 1947년에 이축했습니다. 잔계쓰마루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호리병석

도요토미 히데요시 연고지인 오사카에서 옮겨온 석조물. 전통 공예가 니시무라 다이조(西村大造)씨의 조사에 따르면 "다이코 히데요시의 이름을 따서 다이코석을 사용하고, 더 나아가 박을 파낸 것일까. 그렇다면 재미있구나"라는 흥미로운 해석이 나왔습니다.

◆친잔소 비석

"훗날 이곳에 사는 사람도 이 자연을 지켜나가고 이 산수를 즐기는 내 바람대로의 사람일까." 이 비석은 야마가타 아리토모 공작이 이곳을 매입해 친잔소 조성에 착수했던 당시를 회고하며 친잔소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의 감회를 새긴 기념비입니다.